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세속품(世俗品) ②

萬物如泡 만물여포
意如野馬 의여야마
居世若寄 거세약한
眾可樂此 내하락차

일체 만물은 마치 불거품 같고
제 마음 마치 아지랑이 같으며
이 세상에 사는게 허깨비 같다
어떻게 이것을 즐겁다 하라

若能斷此 약능단차
伐其樹根 벌기수근
日夜如是 일야여시
必至于定 필지우정

능히 세속관심 끊을 수 있고
그 뿌리를 잘라 버리되
밤 낮으로 이와같이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선정에 이르게 된다

一施如福 일시여신
如樂之人 여락지인
或從憍意 혹종뇌의
以微食眾 이반식중

“보배를 쌓아 하늘높이 달아도
눈 밝혀 도의 자취 본것만 못하다”

此輩日夜 차베일야
不得定意 부득정 의

배품이란 믿음과 다르지 않나니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도
혹 세속에 묻든 생각을 좇아
음식으로 대중을 공양한다면
그런 무리는 밤 낮으로해도
선정에 들지는 못하리라

世俗無限 세속무한
莫見道眞 막견도진
如少見明 여소견명
當養善意 당양선의

세상 사람들은 바른 눈 없어
도의 진실을 보지 못하니
만약 조금이라도 밝음을 보려면
마땅히 선한 마음 길러야 한다

如雁將群 여안장군
遊翔高翔 유翔고翔
明人導世 명인도세
度脫眾家 도탈사중

마치 저 기러기가 무리를 거느리고
그물을 피해 높이 날듯이
눈 밝은이는 세상을 이끌어
삿된 무리를 건져준다

世皆有死 세계유사
三賢無安 삼계무안

龍眼

諸天難樂 제천수락
福壽亦衰 복진역상

세상 어디에나 죽음이 있고
삼계엔 편안함도 어디도 없다
저 모든 하늘이 비록 즐겁다하나
복덕이 다하면 역시 없게되는 것

觀諸世間 관제세간
無生不終 무생부중
欲離生死 욕리생사
當了眞眞 당행도진

모든 세상을 살펴보면
태어나 죽지 않는 것은 없나니
생사로부터 벗어나고 싶거든
무디 참된 도를 수행해야 한다

覆護天下 치복천하
食舍不窮 탈령불건
死處無道 사의각도
苦惡從是 고우종시

어리석음이 천하를 뒤덮고
탐욕은 진리를 못보게 하며
삿된 의심 도를 저버리나니

괴로움과 어리석음은 여기서 생긴다

一法說過 일법탈과
謂安語人 위안어인
不覺後世 불면후세
靡惡不更 미악불경

한가지 법을 어기고나서
거짓을 말하여 사람을 속이면
다음 생을 면기어렵나니
악업은 되풀이되어 그치지 않는다

雖多積珍寶 수다적진보
高尚至于天 숭고지우천
如是滿世間 여시만세간
不知見道迹 불여견도적

비록 온갖 보배 많이 쌓아서
그 높이 하늘에 다달고
그와같이 세간에 가득찬다해도
도의 자취를 본것만 못하다

不善像如善 불선상여선
愛如以無愛 애여사무애
以苦爲樂像 이고위락상
狂夫爲所厭 광부위소염

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착하고
애로 있으면서 없는 착하며
괴로움 있어도 즐거운척 하는것
미친 이의 짓이라 꺼려야 한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下心으로 제몸 낮추면

인 허스님 (월정사 회주)

“나”라는 상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 갖추자
불자라면 마땅히 노력해야”

깨달음이요? 아직 얻은 것이 없기때문
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오대산 상원사로
입산해 한암 큰스님을 은사로 출교 오대
산 사람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가사
문이나 재가자나 공덕에 도달코자 하는
저 피안의 깨달음은 팔십년 세월에도 아
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훌륭한
신 스승 만나 깨달음의 직입이랄 수 있
는 수행길로 들어서서 복이 큰 사람입니
다. 행자시절을 선방이 있는 상원사에서
보낸 탓에 누구보다 먼저 선방생활이 어
떤것인 줄 알게 됐습니다.

입산하면 나이 학력 등이 모두 처음으
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모두 무소유(無所
有)로 돌아가려는 깊은 뜻이었습니다. 또
사형스님들에게 자주 듣는 용어가 하심
(下心)이란 용어였습니다. 하심이란 ‘나’
라는 상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
발심수행자의 모습을 갖추려는 것이었습
니다. 이 두가지의 기본을 갖추지 못하면
수행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
음에는 무슨 뜻인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
다. 그러나 하루하루 절생활을 하면서 조
금씩 몸에 익숙하게 됐습니다. 즉 속가의
나는 점점 사라져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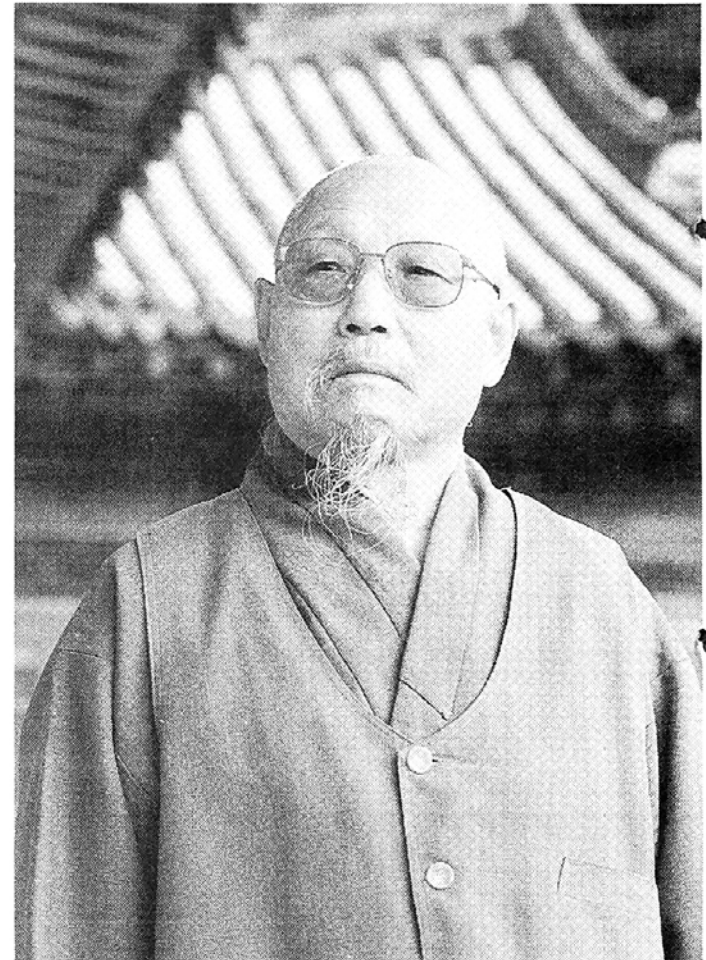
내가 출가할 때만 해도 누가 특별히 공
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 교육시설,
생활시설 모든 환경이 지금과는 천양지
차였습니다. 경전을 어떻게 외웠는지 아
십니까. 경전을 외우기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였습니다. 활
활 타오르는 불속에 속진의 모든 시름을
대워버리고 부지깽이로 박자를 맞추고
도반행자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서로
점검하면서 경전 구절 하나하나를 외웠
습니다. 그 당시 출가한 대부분 스님들이
모두 이렇게 경전을 외웠던 것입니다. 행
자생활 가운데서 따뜻한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지필 때가 가장 한가한 시
간이었습니다. 행자생활의 하루는 빈개불
에 콩볶아 먹듯이 매우 빨리 지나갔습니
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하고, 법당의
청소, 후원에서 밭짓고 반찬만드는 공양
주생활, 노스님 시봉, 예불문 암송을 비
롯 <초발심자경문>등 각종 경전을 익혀

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전을 외우
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분위기
에서 절로 알아차리는 행자들의 소임이자
도리였던 것입니다. 혹독한 행자생활만큼
이나 배우는 것도 많고 신심도 도담게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님들은 불공드리는
일과 사식을 하는 것을 출가자의 기본으
로 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누가 불공을 해달라고 할
때 못한다고 거절 할 수 없었습니다. 불
공과 사식을 못하는 것은 수행자로서
큰 부끄러움이자 결함이며 심지어 죄악
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한암스님께셔도 이 두가지는 반드시
익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 1916년 전북 정읍 초
- 39년 한암스님 계사로 사미계 수지
- 39년 월정사 강원 수로
- 45년 한암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 96년 월정사 회주 추대



“선방생활 무언의 연속이듯
자신의 참모습 찾으려면
말 생각 끊어진곳 가야합니다”

선방의 참선 수좌든, 공양간 공양주 스님
이든, 부목 담당 스님이든 소임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불공과 사식을 만드
시 익히도록 가르치셨거든요. 출가인으로
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할 줄 모르면
절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스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자시절을 겪고 나니 한암스
님께셔 수계를 해 주시고 제자로 삼으셨
습니다. 드디어 출가자가 된 것입니다.
그 때가 내 나이 22살이었습니다. 한암스
님께서는 설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
셨습니다. 성품이 인자하면서도 엄격하고
급한 편이었습니다. 내 그릇을 보시고는

곧바로 선방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상원사 선방은 전국적으로 유명했
고 수많은 수좌들이 수행정진을 하고 있
었습니다. 선방에서 수행을 한다고 하는
스님치고 상원사를 거치지 않은 스님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나도 그 틀에 끼어
참선을 시작했습니다. 한암스님께셔 내려
주신 ‘이뵈꼬’를 화두로 용맹정진에 들
어갔습니. 행자생활하면서 선방수좌들
의 생활을 엿보긴 했지만 막상 정진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긴장했습니다. 대개
는 낮이 익었으나 막상 구함수좌들과 같
이 어울려보니 분위기는 영 달랐습니.
그 중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비와 목
탁으로 시작되고 끝났습니. 겉으로 보
기에는 눈만 뜨고 있었지만 방아쇠나 다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도반스님들끼리 조
차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양 할때
만 입을 벌릴 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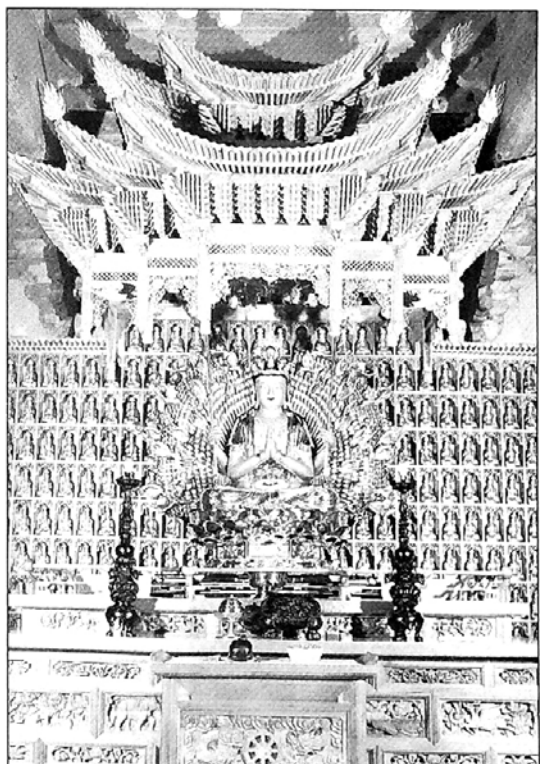
아무리 묵언을 하는 선방이라도 꼭 필
요한 말 한두마디 정도는 있을 법도 한
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 선방은 24
시간 침묵이 흘렀고 계곡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전부였습니
다. 간혹 참새들이 떼지어 지저귄 때는
반갑게조차 느껴졌을 정도니까요. 산속에
혼자 앉아 있구나 하고 착각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침공양배의 일이었습니다. 반찬으로
감자볶음이 나왔는데 기름이 부족하고
설익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한마디 던지면
도 한데 말입니다. 아마 요즘을 같으면
곧바로 불호령이 떨어졌을 것입니. 그
래도 수좌들은 그냥 그대로 조용히 공양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명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담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 공방연구실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진형 합장